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뒷전

13개 기관 지난해 43명 채용 전체 채용인원의 1.35% 그쳐
최근 5년 문화예술위 0명, 사립학교연금공단·농어촌공 1명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들의 채용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 고용에는 인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혁신도시에 입주한 13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채용 인원 중 장애인 고용은 정부의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2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ALIO)'에 따르면 빛가람혁신도시에 입주한 13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신규 채용인원은 총 3176.75명으로, 그 가운데 장애인은 43명에 그쳐 전체 채용인원의

1.35%에 그쳤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5명의 직원을 채용하면서 5년간 단 한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도 총 77명의 직원을 채용하면서 장애인은 지난해 1명의 장애인을 채용했고, 한국농어촌공사는 1490명을 채용하면서 장애인은 2014년 1명을 고용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5년간 241명의 정규직을 뽑으면서 2014년 2명을 채용한 것을 끝으로 더 이상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2%라는 점을 감안, 지난해 의무고용률을 맞춘 기관은 13개 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포함한 4개 기관이 전부였다. 87명을 채용하면서 4명(4.6%)의 장애인을 채용한 한국전력거래소는 그나마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단 한명의 장애인 직원을 채용하지 않았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역시 지난해 11.25명 중 1명(8.88%)을 채용했지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장애인 채용은 없었다. 반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만 2017년 39명 채용 중 장애인 2명(5.13%)을 채용했고, 지난해 58명 중 2명(3.45%)을 뽑으면서 정부의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잘 지켜나가고 있었다. 정부는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취업 기

회를 늘려주기 위해 지난 1991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시행 중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은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지난해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의 3.2%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했다. 올해는 0.2%포인트 높아진 3.22%다. 하지만, 일반 기업들은 물론이고 제도 시행에 적극 나서야 할 공공기관마저 장애인 고용에는 뒷짐을 지고 있는 모양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차라리 의무고용 제도를 지키지 않아 내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선택하는 공공기관도 많다는 점에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유니온 학점과정' 협약식을 체결한 뒤 전국 18개 대학 총장 등 관계자들과 전력거래소 조영탁 이사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제공>

전력거래소-18개 대학 '유니온 학점과정' 협약식

공공기관 인재양성 모델 기대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전국 18개 대학교와 직무능력중심의 오픈캠퍼스 확대 과정인 '유니온 학점과정'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유니온 학점과정'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빛가람학점과정을 전국단위로 확대해 달라는 각 대학의 요청을 반영, 전국으로 확대해 운영된다. 이 과정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혼합과정으로 각 대학별 선발된 교육생 150여 명을 대상으로 1단계 온라인과정 70차

시(35시간)와 2단계 집합과정 5일(40시간)로 운영된다.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전력거래소의 고유 직무 관련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조영탁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전력유관기관 외에도 정부, 지자체, 대학이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힘을 모았기에 가능했다"며 "유니온 학점과정이 전국으로 확대된 만큼 공공기관들의 인재양성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더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수출용 '못난이 딸기' 판로 확보 길 열었다

프랜차이즈 카페 1000여곳
40~50% 높은 값에 납품
aT·업체·생산자단체 협약



수출용 못난이 딸기 유통활성화를 위해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와 딸기생산자단체, aT 등 관계자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T 제공>

협감으로 팔리던 수출용 '못난이 딸기'가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인기메뉴로 탈바꿈하게 돼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농가가 시름을 덜게 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이병호) 사이버거래소는 최근 수출용 못난이 딸기 유통활성화를 위해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와 딸기생산자단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수출용 딸기생산농가는 협감에 넘기던 비규격품 딸기를 40~50% 높게 판매할 수 있고, 프랜차이즈업체는 안정적인 납품처를 확보하는 등 도·농간 상생협력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국내산 신선딸기는 약 5000t(약 530억원)이 아세안 지역으로 수출되는 등 대표적인 수출유망품목으로 떠올랐

지만, 까다로운 수출상품규격에 맞출 수 없던 일부 비규격품 딸기는 산지 폐기되거나 국내 가공업체에 협감으로 팔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번 협약으로 딸기수출농가들은 수출

용 비규격품 딸기를 유명 프랜차이즈가 맹점을 보유한 탐앤탐스, 커피베이, 더치엔빈 등 전국 1000여개 매장에 제철딸기음료 원료로 납품하게 됐다. 정성남 aT 유통이사는 "식품기업들이

딸기 이외에도 다양한 국내 비규격품 농산물의 소비확대를 위해 산지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전파진흥원 '공공부문 혁신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

행안부 장관상 수상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원장 서석진)은 최근 '2018년 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

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이번 공모전은 소통·협업의 효율적 사무공간 확산과 공공부문 개방형 디자인 확산을 위해 열렸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친 후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KCA는 직원의 복지공간을 지역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지원을 위한 '드림라운지'를 구축해 6개 기업이 입주했고, 1층 로비공간에 '카페 자연광'을 구축해 지역 특성과 고등학교인 광주자연과학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지원하고 있다. 또 내부 직원만 사용하던 휴식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도서관'으로 개관했고, 수평적 소통을 위한 '간막이 없는 책상' 및 '스탠딩 회의' 등 개방적 사무공간을 구축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석진 원장은 "지속적으로 공공기관의 자원을 지역사회에 개방함으로써 지역사회 성장발전을 지원하고 사회적 가치추진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문화기술연구개발 할 기관 찾습니다

문광부·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2월 13일까지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은 문화기술 연구개발(이하 CT R&D) 지원사업 지정공모에 참여할 연구기관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CT R&D 지원사업은 '풍요롭고 다채로운 최첨단 문화국가 구현'을 비전으로 국내 문화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콘텐츠 및 서비스 모델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올해 총 494억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해 ▲지정공모 및 정책지정 신규과제에 100억원 ▲자유공모 과제에 55억원 ▲다년도에 걸쳐 진행되는 지정공모 및 정책지정 계속과제에 339억원을 투입한다. 2019년 신규 지정공모 과제는 ▲문화콘텐츠(가상·증강현실, 인공지능) 3개 과제 ▲문화예술(공연, 전시, 음악·음향) 4개 과제 ▲문화융복합(전통·공예, 유통, 디자인 등) 5개로 총 74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특히 소외계층의 문화향유를 위한 지

원 및 서비스 기술,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자연 친화 미디어아트 플랫폼 개발 등의 내용으로 1차 연도에 2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은 또 올해 달라진 점으로 사업 참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제 중복신청 제한 규정이 신설돼 유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영리기업은 본 지정과제 공고 중 1개 과제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비영리기관의 경우 1개 과제에 복수지원이 불가, 연구 책임자 1인당 1개 과제에만 신청 가능하다. 여기에 또 문화기술 R&D 사업 수행을 통한 청년 고용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출연금 5억원당 1명의 신규채용이 의무화됐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오는 2월 13일 오후 4시까지 한콘진 연구개발 정보관리시스템(ctrd.kocca.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콘진 누리집(www.kocca.kr) 지원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준 원장은 "문화산업에서 필요한 기술을 선도적으로 기획·지원하여 고부가가치 중심의 콘텐츠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궁 HOME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